

< 2023년 교회표어 >

모이기를 힘써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행 2:46-47)

‘타인의 집’ 에서 ‘사랑의 집’ 으로!

- 사도신경

- 찬 송 221장

1.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귄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2.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3. 피차에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4.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안에 교제 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 기 도

- 성경본문 고린도전서 12:20~25

- 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 21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 22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 23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 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  
셨느니라

| 삶 나누기

기억에 남는 따뜻한 모임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 정상 등반을 앞 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두 그룹이 대청봉 등반에 나섰습니다. 이제 정상까지 500m 남은 상황에서 A그룹 중 한 사람이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정상을 향한 마음은 온데간데없어지고, 그들은 걸음을 돌립니다. 한사람은 아픈 사람을 업고, 다른 사람은 그의 짐을 메고, 또 다른 이들은 “힘드니 돌아가면서 업고 가자” 하며 모두가 산 밑으로 향합니다.

B그룹도 정상까지 500m 남은 곳에서 한 대원이 넘어져 무릎에서 심하게 출혈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장 손위로 보이는 사람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지? 자네가 남아서 이 친구를 살려주면 좋겠어. 어쨌든 나선 걸음이고,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는 마저 정상까지 올라가겠네.”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끄덕이며 정상으로 향합니다. 남은 사람은 부상당한 사람을 부축하고 산 밑으로 내려가며 속으로 말합니다. “에이! 어렵게 시간 내어 여기까지 왔는데 제일 말단으로 걸려서 정상도 못 찍고 돌아가네.”

여러분! 이 두 장면은 ‘공동체’와 ‘조직’이 어떻게 다른지를 전형적으로 드러내줍니다. ‘공동체’는 목표가 있고 방향성이 분명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대청봉에서 사진을 찍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돌보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A그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조직’은 목표를 정해서 성과를 내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겨도 정한 목표를 이루어내고 성과를 내는 것이 그 한사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B그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사람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람보다 목표가 중요한 B그룹과 같은 곳에 오래 노출되면, 사람은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의 벽을 쌓고 살며 자연히

이곳에 있으면 사람이 쉽게 지칩니다.

대신 사람은 가면을 벗고 내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은 곳에 있어야 평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가면을 벗고 있어도 안전하고, 내가 힘들면 지지하고 응원해 주며, 문제가 생기면 관심 갖고 살펴주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정,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교회를 세상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곳을 통해 진정 공동체가 무엇인지 배우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여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라 하십니다.

###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원리, '지체의식'

하지만 그냥 사람이 모인다고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그것이 '지체의식'입니다(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라. 고전 12:12).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 두신 것입니다(고전 12:18).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체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수용하고, 살펴주며, 지지하고 응원해 줍니다.

바울은 이런 지체의식이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지만, 교회에서 약한 자는 더욱 존귀함을 받고 아름답게 섬김을 받습니다(22~23절). 그가 그리스도의 소중한 지체이기에 아름답게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 것은 스스로의 기쁨을 위함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함이라 합니다(롬 15:1).

또한 바울은 지체의식을 24절에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셨다'라는 부분을 통해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쉬네케라센>은 "어떤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부분을 섞는다.”를 뜻합니다. 곧,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 나와 네가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엡 4:32에서 바울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 결론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는 이 지체의식이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아파하지도,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본래 A그룹의 사람들인데, 이미 B그룹이 되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너진 네 아버지의 집을 중건하라.”는 음성대로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내 형제자매가 지체의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의 모임을 소그룹화 하여 지체의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안에 무너진 지체의식을 회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정죄의식과 조직의식을 넣어 지체의식을 방해하려 하지만, 나와 다른 모습을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품고 지체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 말씀 나눔

1. 교회의 지체의식은 세상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가요?(3쪽 하단 밑줄)
2. 교회 안에서 지체의식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혹은 지체의식을 충만히 느낄 수 있는 구역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3.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